

코로나, 다음달 '마스크 전면해제' 검토

부분 완화 후 감소세...3월말 전면해제 논의 여지 정부 브리핑 주2회 축소...7일 격리의무 5월 논의 개학·변이 변수... "마스크 전면해제 신중해야"

겨울철 코로나19 7차 유행 고비였던 중국 내 유행이 안정되고 실내 마스크 부분 해제 후 약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자 국내에서도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풍토병화)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5월보다 빠른 3월 말 또는 4월 초쯤 실내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해제됨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 해제 이후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던 예측이 나왔지만 평일 기준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1단계 조정 이후에도 대체로 착용 권고

가 지켜지는 편이라고 보고 있다"며 "2단계 해제도 1단계처럼 기준을 정립하는 것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인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의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위기경보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상회복을 시사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방역 상황에 대해 계속 평가하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편 등에

대해서도 계속 판단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마스크(전면해제)에 대해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기경보단계와 감염병 등급 조정,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전환의 경우 예정대로 5월경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은 오는 4월 말께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는 시점에 국내 유행 상황과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방대본 측은 "감염병 등급조정은 관리 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위기경보단계 하향 이후 유행 상황, 대응 역량 및 질병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브리핑도 축소된다. 정부는 월·수·금 주 3회 실시하던 브리핑 횟수를 오는 20일부터 월·수 2회로 줄이기로 했다. 월요일에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이 전문가 브리핑을, 수요일에는 중대본 회의 직후 정부 브리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의 금요일 중대본 서면브리핑은 없어진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3~4월까지의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더 유심히 관찰한 뒤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등을 결정해

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학교·유치원 등이 방학이지만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감염병이 확산하기 용이한 환경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원 수석상임연구위원은 "7차 유행 감소세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가 최저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백신과 감염을 통해 하이브리드 면역을 얻은 사람이 많은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적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을 대체하는 큰 변이가 없어 다음 유행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 재감염이 늘어나는 형태의 유행이 나올 수 있다"며 "다음 유행 확산세일 때 마스크 완화 여부를 평가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해나가고 있다.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안정을 찾은 만큼 방역을 완화해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 주 62회 편성되는 양국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 주 80회, 이후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오는 28일까지 적용하는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입국 창구 일원화 조치는 이번 주 중 종료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해남교도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해남 매일 전통시장 방문

해남교도소 직원들은 지난 16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해남을 소개 매일 전통시장을 방문하였다.

김재환기자



광주 남부소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개표소 화재안전조사

광주 남부소방서는 3월 8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투·개표소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 동부소방, '안전한 우리 공동주택 점검의 날'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16일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한 우리 공동주택 점검의 날' 운영을 실시했다.

이슬비기자



무안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지원센터 운영

무안소방서는 지난 16일 대형마트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화재예방 홍보와 주거환경 안전 분위기 공감대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무안=이성기기자



강진소방,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실시

강진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담양소방,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담양소방서는 지난 15일 수북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 아동센터에 찾아가 겨울철 방학 기간 동안 아동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오월어머니집 "특전사 5·18묘역 급선회, 땀땀치 못한 도둑참배"

"계엄군 피해자 인정하는 것, 5·18왜곡" 5·18유족 설득, 행사 불참하도록 회유

오월어머니집이 5·18 부상자와 공로자회가 미리 특전사들과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한 것에 대해 "도둑 참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19일 5·18 두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의 5·18민주묘지 기습 참배를 두고 "정식 참배한다고 해놓고는 변경 신고도 없이 몰래 참배를 하고 왔다. 땀땀치 못한 도둑참배를 하고 온 것"이라고 밝혔다.

5·18 부상자와 공로자회는 이날 오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포용과 화해와 감사 5·18 민주화운동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마치고 특전사동지회와 국립 5·18민주묘지를 오후 2시에 참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들은 계획을 급선회해 이날 오전 9시 50분에 참배를 미리 마쳤다.

김 관장은 "특전사들과 용서와 화해의 장을 만들기 전 1980년 당시 진정성 있는 고백과 증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계엄군들은 피해자가 아닌 후유증 환자일 뿐이다"며 "가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5·18역사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공동선언식에 예정된 최초 5·18사망자의 어머니와 공수부대 출신 장교와의 결연식을 반대, 어머니 임근식씨가 불참하도록 설득했다. 행사는 임씨가 없는 상태에

서 장교 홀로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관장은 "당연히 인정해선 안 되는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니 설득을 해 불참하도록 한 것이다. 임씨의 현재 상태는 괜찮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의 없이 이 행사를 주도한 두 단체가 시민과 유족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날 행사는 두 단체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립서훈현충원에 안장된 5·18 계엄군 사망자 묘역을 첫 참배한 데 이어 화합을 주장하며 마련한 것이다. 행사 발표 직후 상주적인 오월어머니집과 시민사회단체는 "사과와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행사는 계엄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줄곧 행사 중단을 촉구해왔다.



나들이 즐기는 시민들 절기상 우수인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담양서 주택 화재...40대 여성 1명 사망

담양 주택 화재 현장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9분께 담양 한 마을 주택에서 불이 났다

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55㎡가 탔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 집에 살

던 A(47·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